

식품수출정보

요르단, 食品産業 지속적으로 育成

食品産業體 新規設立 해마다 늘어

年間 食品수입액이 약 4억弗에 이르는 요르단은 지난 수년간 자금자족을 위한 農産物 생산과 食品産業을 적극 장려, 이 부문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86년 요르단 統計省 조사에 의하면 요르단에는 742개의 식품업체들이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從業員 수는 6,411명으로 1개 식품업체당 평균 9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비율이 된다.

이는 84년 기준, 요르단 전체의 기업체 수가 8,533개 업체, 전체 종업원의 수가 5만 6,841명으로 1개 기업당 평균 종업원수가 7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할 때, 식품산업이 전체 요르단 산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업체수의 경우 8.69%, 종업원 수의 경우 11.27%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요르단은 연간 약 8,600만弗에 달하는 食品을 수출하고 있는데,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粉末品・토마토케첩・製菓類 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페르시아灣 지역국가들, 이락・사우디 등의 인근 아랍국가들로 수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산업이란 農業과 工業을 연관짓는 주요한 産業으로서 농업 및 공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현재 요르단은 死海를 포함한 요르단 계곡

의 Al-Ghor 地域을 중심으로 활발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Al-Ghor 지역 水路灌溉工事로 인해 水資源이 확보된 이후 요르단의 농산물 수확은 크게 증가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West Bank에서 경작된 농산물도 요르단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다수의 식품산업체가 매년 신규로 설립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의 식품수입은 연간 약 4억弗에 이르고 있다.

養鷄분야등 加工産業 有望해

요르단의 주요 수입식품류는 畜産品이 단연 주종을 이루고, 이어서 설탕 및 설탕제품, 과일 및 채소 가공제품들이 있다. 결과적으로 식품분야의 무역적자는 매년 1,500만弗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품분야의 투자는 그만큼 앞으로의 투자가능성이 높은 분야라 하겠는데 특히 근래에 와서 급성장한 養鷄분야의 가공산업이 유망시되고 있으며, 그의 감귤류 등 다수의 과일, 오이 및 채소 등의 가공공장 설치가 유망시되고 있다.

한편 요르단 식품산업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742개 食品業體의 50% 이상이 5명 이하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소규모 家內工業이고 단일품종에 다수의 산업체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自國需要를 충당하고, 남는 생산능력 때문에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하며, 타국의 식품기업과 비교해 볼 때 1개 업체의 평균 종업원수가 낮은 편이고 식품업체에 투자되는 자본금이 소규모로서 1개 업체에 투자되는 금액이 142만弗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고 투자 자본금의 큰 비중이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치우쳐져 있는 점들이다.

그리고 요르단의 식품산업은 다양화되어 있지 못한데 이는 投資家들이 신규품목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경향도 있지만 적절한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는 컨설팅기관의 부재에도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小數品目 집중투자로 過當競爭

요르단 식품산업의 문제점으로는 소수 품목에 투자가 집중되어 생산설비稼働率이 60~70%에 불과할 정도로 過當競爭 현상을 빚고 있고 流通過程의 장기화에 따라 식품의 新鮮度가 감소되며, 복잡한 수출입 절차 및 加工食品 수출에 대한 요르단 정부의 지원부족 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상실로 수출이 부진한 것 등이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업체가 요르단의 식품가공분야에 진출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가공식품 完製品의 수출보다는 주로 식품가공 機械, 機器 및 플랜트수출이 유망시되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식품가공분야의 合作投資도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농산품 原資材의 확보 문제, 요르단의 유사산업 존재 유무, 海外마케팅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요르단 정부에서 부여하는 각종 투자혜택(요르단 투자장려법, 産業地帶法, 자유무역지대법 등)을 십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KOTRA 海外市長(1987. 9. 5)에서 발췌〉

對볼리비아 交易 확대情報

駐韓 볼리비아 大使館이 다음과 같이 自國 商품의 對韓수출 및 韓國기업의 對볼리비아 進出誘致희망 의사를 표시해 왔으므로 관심업체는 볼리비아 大使館과 직접 접촉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對韓輸出希望品目 : 아몬드와 밤, 코피, 가공하지 않은 가죽, 고무, 면화, 종자, 목재 및 원목, 綿, 알파카 털, 양털, 설탕원료
- 韓國 中小企業 진출희망분야(생산시설과 기술 진출) : 전기 플러그와 소켓, 디스크, 광성냥, 컴퓨터용 카본페이퍼, 컴퓨터용 프린트 용지, 절연용 테이프, 통조림식품, 銀製 食기류
- 볼리비아 輸出가능분야 : 석유 착출기, 감자 채취기, 산테리야용 석재 가공기

※ 문의처 : KOTRA 海外協力部 輸入對策課
(전화 : 753-4181~9<교> 415, 416)

對日 과일輸出國 殺蟲기술 開發에 진력

日本시장으로 과일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이 對日 수출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病害蟲의 殺蟲技術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薰蒸에 사용되어 온 살충제 EDB(2 취화 에탈렌)에 發癌性의 위험이 있다는 등을 이유로 日本 정부가 대체기술의 개발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美國에 이어 이스라엘이 低溫處理法을 시작했고 아시아 각국도 기술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즉 泰國, 필리핀 등은 망고, 파파야에 대해 蒸熱처리법(과실의 중심온도를 50°C 가까이 하여 살충)을 개발하여 수출량을 증가시켜 오고 있으며, 멕시코도 망고의 對日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溫湯처리법(과실을 50°C 가까운 뜨거운 물에 넣어 살충)을 실용화할 계획이다.

올 1월부터 6월까지의 日本의 과일수입량은 약 84만t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작년보다도 약 10% 이상 증가했다. 현재 日本이 輸入制限으로 묶어 놓고 있는 것은 오렌지 뿐으로 각국은 日本측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병충해를 구제할 경우 자유로이 수출이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종래 감귤류, 망고 등의 薰蒸에 널리 사용되었던 EDB에 대해 美國에서 發癌性이 지적된 바 있어 日本 厚生省은 금년 5월부터 EDB의 잔류농도 검사기준을 엄격히 해왔다.

한편 이러한 대체방법의 개발에는 1~2년의 기간과 200만~300만弗의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나 日本市場은 이만한 투자를 하더라도 타산성이 맞는 시장이라는 판단하에서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KOTRA 海外市長(1987. 9. 5)에서 발췌〉